

# 日本語와 朝鮮語의 時制와 相

日本語と朝鮮語の時制と相

丹 原 邦 博

現在時制の日本語の動詞と冠形詞形の基本形は未來時制に使われる傾向が多い。動作が完了し、結果が目前にある時は、‘ている’で表現する。これは、朝鮮語は進行相と状態の結果の表現があるが、日本語は一つしか無い為である。又、朝鮮語 ‘있 (았, 었)’ には現在の状態を表す機能があるが、日本語 ‘た’ にはその機能は無い。‘어 (아, 여) 있다’ に置き換えられる ‘있 (았, 었)’ は ‘ている’ を使う。又、‘た’ は、過去以外に完了と、發見の機能がある。朝鮮語は ‘아직 + 過去形’ が可能だが、日本語は過去形は不可能である。朝鮮語で ‘있’ が重複した ‘있었’ の場合、日本語は ‘ていた’ の表現になる。

## 1. 序論

시제법은 한 언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시간과 관련을 맺는 문법적 관념에는 시제, 양상, 양태 등이 있다. 시제 (tense) 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에 관한 관념이 문법적인 범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up>1)</sup> 흔히 시제를 시간상의 위치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이 나누기도 하나 시제는 자연 시간과 구별 된다. 시제는 화자가 지금 있는 발화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화시적인 기능을 가진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의 동시성, 전시성, 후시성 등을 문법화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 설은 일본어도 역시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각각 시제가 있다.

상은 우주 만유의 실상이며 언어학에서 상은 시간이 흐르는 모양을 뜻한다. 발화시를 중심으로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발화시를 볼 때 시간제한법을 사용한다.<sup>2)</sup>

본 논문은 조선어의 시제와 일본어 시제의 각 구조를 대조함으로써 양 나라 시제의 형태를 살펴보아 차이를 알아내는 데에 있다.

## 2. 조선어 시제와 상

### 1) 현재시제

일반적으로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되는 시간표현으로 종결형과 관형사형 으로 표시한다.

- (1) ~씨는 지금 책을 읽는다.
- (2) 어머니는 지금 빨래를 하신다.
- (3) ~씨는 요즘 바쁘다.

위 문장은 종결형에 의해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1)은 동사의 종결형인데 ‘읽다’ 의 ‘는’ 이 현재시제의 형태가 되어 있다. 자음어간에 쓰이는 것인데 모음어간에는 (2)와 같이 ‘ㄴ’ 으로 교체된다. 형용사가 올 때에는 (3)처럼 ‘다’ 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또한 시간부사 ‘지금, 요즘, 현재’ 등이 공존하기도 한다.

- (4) 나는 내일 비행기로 간다.

(4)는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발화시는 현재이나 이 사실은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 (시간부사 ‘내일’ 사용) 로 미래가 더욱 분명해진다.

② 관형사형 ‘는’ / ‘ㄴ, 은’

- (5) 가는 사람      (6) 조용한 방      (7) 작은 키

동사의 어간다음에 ‘는’ 이, 형용사에는 ‘ㄴ/은’ 을 붙이면 현재를 나타내게 된다.

2) 과거시제

① ‘었’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거시제는 대부분 어미에 분명히 표시된다.

- (8) 나는 어제 축구를 봤다.
- (9) 나는 그날은 피곤했다.

과거시제는 현재시제와 달리 그 형태가 선어말어미 ‘었 (았,였)’ 등으로 나타낸다. 이들의 시제가 과거임은 과거관련의 시간부사 ‘어제, 그날’ 등이 같이 쓰여 뒷받침이 된다. 선어말어미 ‘었’ 은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현재의 일이나 사건시가 발화시에 후행하는 미래의 일에도 쓰일 수 있다.

- (10) 봄이 왔다.                      (11) 그는 늙었다.

(10)은 구체적으로 봄이 언제 오는지를 짐작하기 어려움으로 지금 봄이라는 현재의 상태로만 해석된다. (11) ‘늙다’ 가 사건이나 동작으로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로 나타날 수 없고 현재의 상태만을 나타낸다.

- (12) ~씨는 지금 의자에 앉았다.

(12)의 ‘앉았다’ 는 ‘앉아 있다’ 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표시한다. 결과성을 의미하는 (앉다, 서다, 뜨다) 등이 ‘었’ 을 취하면 이런 의미가 파악된다.

현재완료상이지만 ‘앉아 있었다’ 나 ‘앉아 있겠다’ 로 하면 과거완료상과 미래완료상이 된다. 또한, ‘고서’ 는 선행절의 동작이 끝나는 것으로 그 결과가 후행절에 이행되는 것이며 ‘ ~어서, ~다가, ~자마자 ’ 등 있다.<sup>3)</sup>

- (13) 9시에 떠났으니 지금쯤 도착했을 거야.

(13)과 같이 결과성을 띠고 있으면 완료적 용법을 표시하기도 한다. 선어말어미 ‘었’ 이 연결형에 나타난 것인데 사건 시는 발화시에 선행한다.

② 관형사형 ‘ㄴ/은’

- (14)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니?
- (15) 여기 앉으신 분이 ~씨입니다.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 쓰이면 현재시제가 되는데 동사에 붙이면 시제가 달라져 과거를 표시한다.

③ ‘있었’

과거시제를 표기할 때 ‘있’ 이 중복된 ‘있었’ 이 쓰이기도 하는데 ‘했었다, 갔었다’ 와 같은 것은 올해나 오늘 즉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전제되며 이것들은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먼 과거의 일을 표시할 때 쓰인다.

- (16) 어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 (17) 어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었다.

(16)은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아직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17)은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다. 즉 사건이 일어났다가 완결되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상황의 단절이다.

④ ‘더’

회상법의 ‘더’ 는 과거의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쓰인다. ‘더’ 는 과거의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쓰인다. ‘더’ 뒤에서는 종결어미 ‘-다’ 는 ‘-라’ 로 바뀌고 ‘-어요’ 는 ‘-데요’ 가 된다. 용법도 특이하고 복잡하다. 과거 일에 대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의 일에는 쓰지 못하고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쓸 수 있다.

- (18) 어제 그 친구도 얘기하더라.
- (19) 어제 그 친구도 왔더라.

(18)은 경험당시의 현재이고 (19)는 경험당시의 과거라 할 수 있다. 종결형으로 쓰일 때는 화자 자신이 주어가 될 수 없다.

\* 나는 어제 숙제하더라.

다만, 현실이 아닌 꿈속의 일이거나 의도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가 객관화되어 또 하나의 자기를 관찰하는 입장이면 쓸 수 있다.

- (20) 어제 꿈속에서 내가 가더라.

(21) 졸업했는데도 모르게 학교 앞으로 가게 되더라.

또한 화자의 느낌을 말할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답다, 춥다, 무섭다. 좋다, 싫다, 맵다 등)

연결형으로 올 때는 일인칭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닌 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22) 이건 내가 마시던 커피다.

(23) 15세기에 거기 갔던 사람이 쓴 책이다.

### 3) 미래시제

#### ① ‘겠’<sup>4)</sup>

일반적으로 미래형을 나타내는 어미는 ‘겠’이다.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라는 것이다.

(24) 내일도 비가 오겠다.

‘겠’은 미래형을 나타내는 동시에 추측이나 의지나 가능의 의미가 있다.

(25) 내가 하겠어요.

(26)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또한 현재나 과거의 추측에도 쓰인다.

(27) 부산에도 비가 오겠다.

(28) 부산에도 비가 왔겠다.

#### ② 관형사형 ‘ㄹ/을’<sup>5)</sup>

관형사형에는 보통 ‘ㄹ’로 표시한다.

(29)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30)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29)는 단순한 미래를 (30)은 의존명사와 합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오겠습니다’는 ‘오겠다’보다 근거가 약할 때 쓰인다.

#### 4) 진행상

‘ ~고 있다 ’ 의 동작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동작의 진행을 표시한다.<sup>6)</sup>  
 ‘ ~고 있었다. ~고 있겠다 ’ 로 하면 과거진행상, 미래진행상이 된다.  
 ‘ ~는 중이다 ’ 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사용범위가 좁으므로 동작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동사에만 쓰인다.

(31) 공부하는 중이다.

또한 순간동사에도 ‘ ~는 중 ’ 은 쓸 수가 없다.

(죽다, 앓다. 서다. 췌다, 끄다, 결혼하다 등)

‘ ~아 (어, 여) 가다 ’ 는 화자가 바라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 때 쓰이며 진행상형태에는 습관적인 반복을 표시하는 ‘ ~곤 하다 ’ 도 있다.

#### 5) 예정상

(32) 우리는 그 곳에서 살게 됐다.

(33)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32)는 피동표현으로서 과거에 있어서 예정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33)은 사동적 표현으로서 현재에 있어서 예정될 일을 표시한다.

### 3. 일본어 시제와 상

#### 1) 현재시제

일반적으로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되는 시간표현으로 종결형과 관형사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한국어하고 같으나 일본어는 동사일 경우 기본형은 미래시제에 쓰이는 경향이 있고 진행형인 ‘ ~ている ( ~고 있다 ) ’ 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さんは, 今, 本をよんでいる. ( 읽는다 )

(2) 母は, 今, 洗濯を されている. ( 하신다 )

(3) ~さんは, 最近, 忙しい. ( 바쁘다 )

위 문장은 종결형에 의해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1)은 동사의 종결형인

데 일본어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선어의 ‘는/ㄴ’ 같은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동사의 동작이 있는 문장은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지금, 요즘, 현재’ 등이 공존하기도 한다.

## 2) 과거시제

### ① ‘-た’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는 시간표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어미에 분명히 표시된다.

- (4) 私は 昨日, サッカーを見た. (봤다)
- (5) その日は, 疲れた. (피곤했다)
- (6) そのかばんは, 重かった. (무거웠다)
- (7) その家は, 静かだった. (조용했다)

과거시제는 현재시제와 달리 그 형태가 ‘た’ 로 나타난다.

한국어는 었 (왔, 었) 으로 각각 교체하지만 일본어는 동사일 때는 주로 ‘て형’ 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사용하여 각 어휘를 ‘て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た’ 를 붙인 형태가 과거형이다.

- (8) ~さんは 今 いすに すわった. (앉았다)
- すわっている. (앉아 있다)

(8)의 ‘すわった’ 는 ‘っている’ 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표시한다.

일본말은 결과성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진행형인 ‘~ている’ 로 표현된다.

즉, 조선어일 경우, 진행상 ‘~고 있다’ 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어 (아, 여) 있다’ 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에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た’ 와 ‘ている’ 가 쓰이는 장면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들을 보면.

- (9) 나는 엄마를 닮았다.      (x) ~ 似た.
- (o) ~ 似ている.

- (10) 달은 어느 쪽에 떴나? (x) ~ 出た?  
 (o) ~ 出ている?

조선어 있 (았, 었) 을 ‘어 (아, 여) 있다’ 로 대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일본어로는 ‘た’ 를 쓸 수 없다.

(9)처럼, ‘답았다’ 는 ‘답아 있다’ 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어에서 ‘似た’ 라는 과거형은 쓰지 않고 ‘ている’ 를 써야 한다.

(10)도 마찬가지로인데 ‘떠 있는 달’ 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문장이라면 상태를 나타내는 ‘ている’ 를 써야 한다. ‘出た’ 라는 과거형을 쓴다면 지금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어제나 그제의 달을 말하는 것이다.

- (11) 더 먹어요.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x) ~ 残ったよ.  
 (o) ~ 残っているよ.

위 문장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모임이 끝난 후 ‘남았다고’ 할 때는 ‘残った’ 는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모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남아 있다’ 고 할 때 상태를 뜻하는 ‘ている’ 를 써야 한다.

- (12) 결혼했어요? (x) 結婚しましたか?  
 (o) 結婚していますか?

위 문장은 현재 상태 (순간이 아닌) 것을 물을 경우, 상태지속인 ‘ている’ 를 써야 한다.

- (13) 언제 결혼했나요? (x) ~ 結婚していますか?  
 (o) ~ 結婚しましたか?

이 문장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 묻는 경우 이 문장에서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과거형이 된다.

- (14) 지갑이... 앗, 여기 있네! (x) ある. (o) あった.  
 (15) 드디어 버스 온다. (x) 来る. (o) 来た.



### 3) 진행상

일본어 진행상은 ‘～ている’로 표기 된다.

‘～는 중이다’로 바꿔 쓸 수도 있다.

(19) 勉強しているところだ.

일본어는 ‘하다 + 중이다’를 표현할 때 직역표현으로 ‘～ている中’라고는 말하지 않고 ‘～しているところだ’로 해야 맞는 표현이다. 한자어와의 직접연결은 한국어와 같다. 한자어와의 연결은 ‘ところ’는 쓰지 않고 ‘中(ちゅう)’을 사용한다.

(20) 勉強中だ. (공부 중이다.)

### 4. 미래시제

‘～でしょう / ～だろう’

일본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어말어미는 ‘でしょう’이다.

조선어와 같이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에 일어난다.

(21) 明日も雨が降るでしょう.

조선어에서 ‘겠’은 의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일본어에는 이에 해당되는 말이 없다.

### 5. 결론

일본어와 조선어의 시제를 살펴봤는데 표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를 하면 현재시제에 있어서 일본어 동사일 경우, 기본형은 미래시제에 쓰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진행형인 ‘～ている’로 표현한다. 이것은 관형사형일 때도 마찬가지며 동사의 기본형이면 미래를 나타내 ‘～ている’가 오면 현재를 나타낸다. 동작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가 눈 앞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표시할 때에는 진행형인 ‘～ている’로 표현 한다. 이것은 한국어는 진행상인 ‘～고 있다’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어(아, 여) 있다’의 두 가지가 있지만 일본어에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어 었 (았, 었) 에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데 비해 일본어 ‘た’ 에는 그 기능이 없어 ‘어 (아, 여) 있다’ 로 대체할 수 있는 었 (았, 었) 은 ‘ている’ 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일본어 ‘た’ 는 과거만이 아닌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완료의 뜻의 { 지금 막 끝났다, 다 했다}, 또 하나는 발견 (발견하는데 우연이나 발화자의 노력이 필요함) 이 있다.

조선어는 ‘아직+과거형’ 이 가능한데 일본어는 ‘まだ+ている/いない’ 가 되어 과거형 ‘た’ 는 올 수 없다. 조선어에서 ‘었’ 이 중복된 대과거인 ‘었었’ 일 경우에 일본어는 て형으로 연결해서 종결어에 과거형이 오는 형태 즉, ‘~ていた’ 의 표현이 된다.

회상법의 ‘더’ 는 현재 일본어에는 해당되는 말이 없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들이 일본어를 학습할 때나 조선어를 학습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注

- 1) 김차균 (1999) 『우리말의 시제구조와 상 인식』 p228
- 2) 이익섭, 이상익 (1997) 『한국의 언어』 p287
- 3) 이남순 (1998) 『시제. 상. 서법』 p165~168
- 4) 박덕유 (2007:84) 는 주시경에서 시제범주 속에서 다루어 ‘올때’ 로 보았으며 따라서 미래시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남기심을 기점으로 미래 시제 의미가 부인되었다. 그후 이정민, 신창순, 서정수, 이기용, 이남순, 김차균, 이익섭, 안명철, 성광수, 장경희, 이선정, 정희자 등에서 미래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리하면 대체로 ‘추측, 가능, 의도’ 로 나타낸다.
- 5) 동명사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과 명사형 어미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 6) 임지룡 (2006:282) 은 어떤 동작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말한다고 한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동작상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문헌

고영근 (1983) 『국어 문법의 연구-그 어제와 오늘』 탐 출판사  
 고영근, 남기심 (1999) 『표준국어문법론』 탐 출판사  
 김기혁 (1995) 『국어 문법 연구-형태 통어론』 박이정  
 김상철 (1997) 『한·일어 대응 실용어구 연구』 한국외대 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김선정, 허용, 송재욱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이해』 방송통신대출판부  
 김영만 (1994) 『오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작문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대 국어국문 석사학위논문  
 김차균 (1999) 『우리말의 시제구조와 상 인식』 태학사  
 남기심, 이상익, 홍재성 (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과 실제』 방송통신대출판부  
 남성우 (1999.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大學教育』 1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기덕 (1999.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小考』 한국외대부설외국어교육연구소  
 박덕유 (2007.9) 『한국어의 상 이해』 제이앤씨

- 원진숙 (1988) 『국어 동의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남순 (1998) 『시제. 상. 서법』 월인  
이익섭, 이상억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섭, 채완 (2002)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정자 (2002) 『한국어 ‘-고/어 있다’, ‘-있’ 과 일본어 ‘-ている’ 의 표현 대조 연구』 한국외대 국  
어국문 석사학위논문  
임지룡 (2006.8)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임호빈, 홍환표, 장숙인 (1989) 『外國人のための韓國語文法』 연세대학교출판부  
梅田博之 (1980) 『朝鮮語を母國語とする學習者のための日本語教材作成上の問題点』 日本語教育  
大野 晋 (1999) 『日本語の文法を考える』 岩波書店  
오즈보 유키 (1992) 『日本人에 對한 韓國語學習 問題点』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服部鈴子 (2003) 『일본어표현 이게 왜 틀려?』 시사일본어사